

[사회]

■르포-‘타르 재앙’ 직격탄 맞은 전남 서해안

횃집 ‘썰렁’...갯벌체험장 ‘텅텅’

관광객 발길 뜰...민박집 문의조차 없어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영광·무안·신안 등 전남 서해안 경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마다 관광객 수만명이 찾고 있는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갯벌체험장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아예 끊겼다. 갯벌체험장의 경우 같은 시기인 지난해 1월만 관광객 2천여명이 체험장을 찾았으나 타르 덩어리가 유입된 이후부터는 관광객이 전혀 찾지 않고 있다.

무안 도리포 해수욕장 인근 횃집은 한겨울 솜어철을 맞아 하루 1백만원 이상씩의 매출을 올려왔었다. 그러나 타르 방제작업이 시작된 지난해 말 이후 하루 매출 10만원도 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해제면 도리포 M횃집의 경우 연말 연시 특수를 노리고 500만원어치의 솜어를 구입했지만, 타르 유출로 인해 하루에 1kg도 팔지 못했다. 결국 1

주 이상 판매를 하지 못한 400만원 이상의 솜어가 폐사해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

이 횃집 주인 김모(여·55)씨는 “기름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아무런 해도 없는데 타르덩어리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돌자 평소같은 매출 줄을 쓰던 손님들이 거절처럼 뚝 끊겼다”며 “어민들이야 피해 보상이라도 받는다지만 고기에서 오염도,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은 보상도 못 받고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리포 D횃집의 경우도 기름 유출 사고 전인 지난해 12월 솜어만 팔아 1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새해 들어 하루 평균 10만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G횃집도 팔리지 않는 솜어를 바다에 방류하고 말았다.

민박집도 지난해엔 동창회나 대학교 단합대회 행사 등으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문의 전화조차 없다.

타르 덩어리 여파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목포 등의 횃집 업주들도 불안이 커



손님들은 다 어디로...

무안과 신안 등 전남 서해안 지역 관광·오식·숙박업계가 타르 덩어리로 인해 불경기의 뒷서리를 맞고 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한 횃집이 7일 오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타르 제거 힘 모아도 모자랄 때...

무안군 전공노 금강산 관광 물의

전남 서남권 해역에 타르 덩어리가 밀려온 가운데 무안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무안군지부 소속 공무원 21명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

그러나 무안지역에는 구랍 30일부터 타르 덩어리가 해안에 밀려

들기 시작해 현재까지 연인원 1만 1천여 명이 160여t의 타르를 수거했다. 특히 해제면 대사리 님머리와 송석리 도리포, 용정리 덕산리 술산 등에 집중적으로 타르가 밀려와 이 지역 김 양식장과 해안 갯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무안군 공무원 600여 명은 휴일도 없이 매일 해변에서 타르 제거 활동을 벌여왔다.

이처럼 타르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타르 제거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무안군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강산 관광은 민 주도총과 전공노 차원에서 통일 분위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자비부담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라며 “이미 일정이 확정돼 있던 계획이라 취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무안=채희종기자 chae@

외판심 타르 제거 ‘死角’

접안 어렵고 인력 없어 기름 범벅 방지

신안군 일대 섬지역이 타르 제거작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지도읍, 장산면 일대는 일명 ‘다이아몬드계도’라고 부를 정도로 천해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으나 타르 방제작업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들 섬 지역의 경우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봉사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데다, 소형 어선을 타고 가더라도 접안(接岸)이 쉽지 않아 방제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오전 10시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於義島), 구랍 30일 이후 방제작업이 9일째를 맞았으나 해안가는 20cm 두께의 타르 덩어리로 가득했다. 조약돌과 함께 뒤섞인 타르 덩어리는 손도 못 댈 정도로 해안가 곳곳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같은날 오전 11시 30분 어의도 인근 매골도, 타르 덩어리가 큰 바위에 뒤덮여 있었다. 해안가 대부분이 타르에 뒤덮여 밭 디딜 틈도 없었다. 마

치고 있다. 목포시 산정동 D횃집 주인 박모(52)씨는 “아직까진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서해안 해산물을 꺼리는 건 사실이다”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 하는 데 워낙 큰 사고라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더 걱정이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신안 김 축제’ 11월로 연기

오는 18, 19일 신안 압해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 1회 신안 지주식 김 축제’가 햇김 생산시기인 11월 하순으로 연기됐다.

신안군은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 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 축제’를 열기로 했으나 타르 덩어리가 대량 유입돼 수산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축제를 연기했다.

/신안=조원범기자 wncho@

구름 가득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1월 8일
(음 12월 1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1~8℃
주요도시	구름 많음	2~8℃
목포	구름 많음	3~9℃
여수	구름 조금	2~9℃
안동	구름 많음	-3~8℃
대구	구름 조금	-2~9℃
대전	구름 많음	-3~8℃
충청	구름 조금	-2~9℃
전남	구름 조금	-2~10℃
전북	구름 조금	-1~8℃
경상	구름 많음	-3~8℃
강원	구름 많음	-1~8℃
제주	구름 많음	-1~9℃
울릉도	구름 많음	-4~7℃
독도	구름 많음	5~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만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1:30 썰물 < 07:02
여수 밀물 < 14:29 썰물 < 19:55

▲해돋이 07:41 ▲해질 17:36 ▲달돋이 07:37 ▲달질 17:13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씨						
최저/최고	-1/4	-2/6	0/5	-1/6	-3/2	-3/2

남해안 해수면 매년 0.34cm 상승

동·서해안보다 3배 이상 높아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남해안의 해수면 상승률이 동·서해안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심동현)은 7일 해수면 높이측정을 시작한 지난 1964년부터 2006년까지 남해안의 매년 평균 0.34cm씩 상승해 동해안의 평균 0.14cm와 서해안 0.1cm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40여년 동안 남해안 해수면이 14.3cm 가량이 높아진 것으로, 서해안 4.2cm, 동해안 5.9cm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한해 해수면 평균 상승률이 0.51cm로 40년동안

무려 22cm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한 해 평균 상승률을 보면 완도 0.23cm ▲여수 0.15cm ▲목포 0.12cm였으며 제주도 서귀포는 0.6cm ▲제주시 0.5cm ▲추자도 0.33cm ▲거문도 0.59cm를 기록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의 해수면 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대양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기류가 가장 먼저 닿기 때문”이라며 “점점 더 해수면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해안선 유실과 침수, 해수범람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한양대 설립자

김연준 박사 별세

한양대를 설립한 백남(白南) 김연준 전 한양학원 이사장이 7일 0시30분 숙환으로 한양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4세. <관런기사 20면>

1914년 함북 명천에서 태어난 김연준은 경성고보를 나와 1939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한양대의 전신인 동아공과대학을 설립했다. 이후 한양대, 한양여대, 한양대 사범대학 후속



중·고교, 한양초등학교 등을 운영했다.

유족은 부인 백경순(82) 여사와 김명서(여·60) 한양대 음대 교수, 김종량(58) 한양대 총장, 김명희(55·여) 한양대 사범대 교수, 김종식(51) 백남관광 부회장 등 2남2녀. 빈소는 한양대 한양종합기술관 6층. 발인 11일 오전 10시. 02-2220-003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특별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마술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요?
마술을 배우고 싶은가요? 마술을 배우고 싶은가요?
마술을 배우고 싶은가요? 마술을 배우고 싶은가요?

수료생 혜택 / 대상

-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교육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천동 1-1번길 11 (서천동) 신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덕동 1-1번길 11 (대덕동) 대덕초등학교
☎ 전화문의: 062-434-7857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인생 수레를 편안하게 운행하시기를 도와드립니다.

시제: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제사상: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 (061)383-8283

평양한과